

코로나19 사태와 시민사회: 아시아 현황

- 기부문화국제학회 ARNOVA 웨비나 요약

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
이은진

*Global Issues &
Transnational Actors (GITA)*

 **ARNOVA**
ASSOCIATION FOR RESEARCH ON NONPROFIT ORGANIZATIONS AND VOLUNTARY ACTION

ARNOVA 소개

- **명칭** : Association for Research on Nonprofit Organizations and Voluntary Action (ARNOVA)
- **설명** :
 - 1971년 미국에서 설립된 기부문화국제협회
 - 비영리분야의 학계와 현장이 만나는 중립적 오픈포럼
- **주요활동** : 연례 컨퍼런스(국제/지역), 간행물(NVSQ 저널), 세부관심사그룹
- **홈페이지** : www.arnova.org

GITA 소개

- **명칭** : Global Issues & Transnational Actors (GITA)
- **설명** : 2013년에 시작한 ARNOVA 내 세부 관심사 그룹(common interest group)으로 ARNOVA 학자와 실무자들이 글로벌 이슈와 초국가 행위자(transnational actors)에 대한 연구를 나눌 수 있도록 지원

GITA/ARNOVA Webinar Series 소개

- ARNOVA 회원들이 글로벌 이슈와 초국가 행위자에 대하여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함
- 남쪽 국가들의 연구자 및 실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
- 2020년 Webinar 시리즈는 '코로나19와 시민사회'라는 주제를 대륙 별로 다루고 있음
 - 아프리카 : 7월 23일(목)
 - 아메리카/유럽 : 추후공지

The 5th GITA/ARNOVA Webinar

The Covid-19 Crisis and Civil Society: The Situation in Asia

- **일시 : 2020.06.19(금)
10:30-11:30**
- **대상 : ARNOVA 회원들**

주최: GITA (ARNOVA common interest group)

좌장

정복교 교수 (미국 Kean University,
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)

발표자

한국 : 전현경 전문위원 (아름다운재단)

인도 : Ingrid Srinath (Director, Centre for Social
Impact & Philanthropy, Ashoka University)

중국 :

Hu Ming (Assistant Professor, Nanjing University)
Mark Sidel (Doyle-Bascom Professor of Law and
Public Affairs, University of Wisconsin-Madison)

발표국가

- 한국
- 인도
- 중국

주제

- 1) 코로나19가 시민사회와 기부문화에 미친 영향
- 2) 코로나19에 대한 시민사회와 기부문화의 대응

한국

1. 코로나19가 시민사회와 기부문화에 미친 영향

-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‘코로나19 발생의 비영리 영향’ 설문조사
 - 5월 에 진행 – 147개 단체에서 참여
 - 3가지 주요 결과 확인
 - 단체들 78% : 1월~4월 서비스 및 활동이 심각한 영향 받았거나 중지됨
 - 앞으로 6개월 동안 재정적 문제 가장 심각: 96.9%가 개인기부의 감소, 84.0%가 프로그램 취소로 인한 서비스 비용의 감소 예상
 - 업무에 있어 가장 큰 필요는 기술적 지원 : 49.7% 응답 (프로그램 온라인으로 전환)
다음으로 재무 시나리오(48.3%), 정부 추가지원(44.9%), 개인기부(41.5%), 기업의 지원(41.5%)
- 하지만 정부의 재무 또는 기술 차원의 지원은 없음

한국

2. 시민사회와 기부문화의 대응 (1)

- 코로나19 민간모금
 - 한국의 재난모금 신기록 세움 : 모금액 2805억5891만원 (2020.06.04 기준)
 - 최단기간에 최대규모의 모금 (재난이 특정 지역이나 분야가 아닌 모두의 상황이기에)
 - 모금의 빠른 집행 : 집행액 2257억6691만원 (2020.06.04 기준)
 - 모금액의 80.4% (사용처 : 의료 / 자가격리자 / 취약계층)
- 정부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원 : 1) 경제회복 2) 기술적 지원
- 좋은 사례
 - 민관협력 : 마스크 정보공유하는 앱 개발 등
 - 풀뿌리노력 : 청년들이 지역 캠페인 플랫폼 만들어 모금액으로 어르신들 응급키트 지원
- 정부의 '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하기' : '기부' 의 의미에 대한 논의 여지

한국

2. 시민사회와 기부문화의 대응 (2)

➤ 코로나19로 인한 현상

- 코로나19에 대한 주요 대응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함
- 시민사회는 시행하는 과정에 인권위반사항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 (주로 온라인으로)
- 사회복지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에서 비공식적 서비스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어 (대상자와의 접촉여부 등) 다 알 수 없음

→ 전반적으로,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확대되고 시민사회는 부차적인 역할을 함. 특히 제한된 접촉 때문에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음

인도

1. 코로나19가 시민사회와 기부문화에 미친 영향

-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봉쇄(lockdown)를 실시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구제조치만 취함
 - 인도주의적 위기
 -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(informal sector workers) 94%가 하루 아침에 무직
 - 인도 내 이주노동자 5-6천만 명은 수입 끊기고 가족과도 단절됨
 - 투자가 부실했던 공공보건시스템의 민 낮 드러남 (마스크 등 기본 장비 부족)
 -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회보장제도/사회적 보호(social protection)
 - 지연된 국가차원의 대응 : GDP 1% 미만의 대응 - 주로 간접적인 대처방안에 사용
 - 3가지 위기 : 보건, 경제, 사회

인도

2. 시민사회와 기부문화의 대응

- 전례 없는 규모의 동원(mobilisation)
 - 인도의 구호기금 PM-CARES Fund에 USD 11억 (약 1조3193억4천만원) 모금됨
 -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기부
 - 온라인 기부 180% 증가
 - 페이스북 모금 신기록; 영화,음악,미술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 및 시민들의 활동
 - 비영리 70-80%가 직접적인 대응에 참여
 - 대응방법 : 식량, 의료, 수입 및 생활비 지원, 연구, 어드보커시, 모금, 정보제공, 협력 등
- 시민사회에 대한 규제 강화
 - 세금공제
 - CSR
 - 활동가들 단속

인도

3. 시민사회와 기부문화 — 향후 전망

- 2021-2022년에 기부문화 30-60% 감소
- 코로나19에 편향된 관심
- 비영리분야에만 약 200만 명의 실직자 나올 가능성
- 소규모, 지역 풀뿌리 단체들과 소외된 대상들(marginalized communities)에 과도한 영향
- 여러 분야에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의 발전이 늦춰짐
-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변화의 기회 : 공공보건, 주택, 도시개발, 노동권, 사회보장
- Kerala지역 같이 성공적인 지역으로부터 배움
- 기부문화가 회복탄력성(resilience)으로 관심이 어느 정도 전환됨
- 전국적으로 시민사회의 연대감이 강화될 가능성

중국

1. 비영리와 기부문화의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분업(*division of labor*)과 협업(*collaboration*)

- 단체들(큰 단체들 포함) 이 모금을 통해 국가의 승인을 받은 배분단체들(*implementing organizations*)을 지원함
- 일부 큰 단체들은 중국 내 및 해외에서 의료장비와 개인보호장비 구입
- 지역기반단체들은 자원봉사자와 스텝을 동원해 온라인.오프라인 지원 마련
- 자원봉사자, 상호부조집단과 풀뿌리단체들이 지역주민 및 영향 받은 사람들 도움
- 업계단체들(*Business associations*) 및 전문가협회들(*professional associations*)이 현금과 현물 기부에 참여
- Zhuoming, Lingxi, and Yishan과 같은 기술지원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에 기술지원 마련

중국

2. 비영리분야의 대응 및 정부가 허용한 대응

- 중국의 재단, 개인, 기업들의 후원
 - 어떤 후원이 얼마나 허용되었거나 허용되지 않았나?
 - 후원의 전달체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과 할 수 없는 중간지원조직은?
- 상호협조(Mutual aid)
 - 허용된 상호협조와 허용되지 않은 상호협조는?
 - 상호협조를 할 수 없는 단체 또는 개인은?
- 시민사회/대응 관련 기타사항
 - ONGOs(Overseas NGOs)의 역할 제한됨
 - 정책창도(Policy advocacy) 제한적
 - 네트워크 및 연합(Coalitions) 형성됨

중국

3. 비영리의 대응이 시민사회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?

- ▶ 기본적인 대답은 : No! → 이유는 아래사항들을 포함
 - 정부가 '굉장히 중앙집권화된 정책'의 승리를 주장하고 강화시킴
 - 정책 이어갈듯
 - 정부의 지휘(leadership)에 몇몇 단체들은 반응하고 다른 단체들은 반응하지 않음
 - 2008년 쓰촨 대지진 때보다 반응하지 않는 단체 많음
 - 정부 관련 비영리들은 성과와 상관없이 특혜(privileges)를 받음
 - 성과 없어도 이런 비영리들의 존재감이 더 큼
 - 기업과 재단들은 비영리보다는 정부를 지원함
 - 정부부처에 후원금 바로 보탬
- 코로나19에 대한 국수주의와 포퓰리즘이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 높음

중국

4. 발전의 가능성은?

➤ 희박하지만,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는 이유:

- 자발적이고 풀뿌리인 유능한 봉사단들(volunteer groups)의 성장
- 인터넷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부처와 섹터의 한계를 넘어선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공동의 활동(synergetic action)이 조성됨
- 대외원조를 제공하는 중국 재단들이 많아지면서 국내 단체들도 힘 얻을 것
-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언론의 자유와 법의 지배(rule of law)를 위한 노력이 대중의 관심 받으면서 탄력 받음